

Letterly

보스톤코리아 창간 20주년 기념,  
온라인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



Letterly CEO와 함께하는  
특별 Q&A 웨비나



Vol. 21 No. 1002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April 11 2025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 모두에게 감동인 PEM후원의 밤,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 폭우와 추위 속에서도 300여명 참가해 따뜻한 감동 나눠 후원의 밤 총 기부액4만4천달러 모금 기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피바디에 섹스뮤지엄(PEM) 유길준관 재개관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예상을 뛰어 넘는 성황을 이루며 막을 내렸다.

300여명의 한인 및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한인사회의 단결된 힘을 보여준 대표적인 선례로 남게 될 예정이다. 한인사회는 이날 43,998달러를 모았으며, 각자가 나누는 감동의 크기는 이 금액의 가치에 비할 수 없는 거대한 것이었다.

5일 토요일 오후의 폭우와 쌀쌀한 날씨에 움추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한인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다. 행사 3시간 전 준비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모

### 〈전체 기사 읽기〉

여든 것을 시작으로 많은 한인들이 내틱 엘크스 로지(Natick Elks Lodge)를 찾아 들었다.

행사는 오후 6시 각 단체에서 준비한 한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며 시작했다. 식사를 위한 긴줄이 늘어서는 모습을 보며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후원의 밤은 5월 15일 역사적인 유길준관의 재개관을 맞이해 지속적인 운영 자금을 모으고자 계획된 행사로 한인들의 호응도를 측정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행사였다. 결 **▶▶6면으로 계속**



4월 5일 내틱엘크스로지서 열린 PEM 후원의 밤행사에서 대형 비빔밥을 비비는 시연을 하기 위해 한인사회 주요인사들이 함께 했다. 좌로부터 한문수 평동회장, 김금련 국제선회장, 김병국 예술인협회장, 김수옥 PEM CPO, 김재휘 총영사, 한순용 노인회장, 허훈 경제인협회장, 박형태 강원도민회장, 김지연 큐레이터, 양미아 후원회장

**마이클리 모기지**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내 집 마련·투자·재융자,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  
저금리 융자·재융자,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믿을 수 있는 모기지 해결사!  
모기지 제일 잘 하는 마이크!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 21대 대통령 재외 선거 재외국민 등록 24일까지 마쳐야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기간까지 등록해야 한 표 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중중앙선거위가 제 21대 대통령선거일을 6월 3일(한국시간)로 지정함에 따라 재외선거는 5월 20일 화요일에서 25일 토요일까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재외 국민 유권자들은 24일까지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재외선거 참여를 위해서는 미국에 단기 체류중인 학생, 직장인 등 국외부재자와 한국 국적이지만 국내 주민등

### 〈전체 기사 읽기〉

록이 없거나 말소된 미국 영주권 소지자 등 재외 선거인은 반드시 선거 일정 기간 전까지 신고 및 등록신청이 필수다. 선거법에 따르면,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확정해야 하므로,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는 늦어도 선거일 40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기에 시간이 얼마 남 **▶▶4면으로 계속**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임지훈 장학재단 20명 한인학생 선발, 각 5천달러씩 지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임지훈 장학재단이 4월 5일 20명의 2025년 장학생을 선발, 각 \$5,000씩 총 10만달러에 달하는 장학금을 수여했다.

전 카카오 CEO이자 현재 뉴욕대(NYU) 스텐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임지훈 교수가 전액 기부해 설립한 이 재단은 매사추세츠 및 로드아일랜드 두 곳을 포함한 보스톤 지역과 뉴욕, 워싱턴 일원에서 장학생을 선발해 수여하고 있다.

올해 보스톤 지역에서는 6명의 학생들이 선발돼 장학금을 수여 받았다. 보스톤지역 장학생은 Eunchoe Kang(에머스트칼리지), Henry Min(브라운대), Joseph Hwang(하버드), Lisa Baek(브라운대), Nathan Kim(MIT), Yewon Lee(하버드) 학생이다.

임지훈 장학재단은 선발된 20명의 학생을 5일 맨하튼 내 Porter House 레스토랑으로 초청해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이 자리에서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했다. 임지훈 교수의

멘토링 세션 후 학생들은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임지훈 장학재단은 외부 펀딩 없이 임지훈 교수가 전액을 기부해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에 10명, 2024년에 20명, 2025년에 2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올 가을에는 지금까지 선발된 장학생들이 모두 모여 네트워킹을 하는 reunion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 장학재단은 매년 뉴욕, 워싱턴과 보스톤 일원의 지역에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한인 2세 또는 영주권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선발시 펍사(FAFSA) 기록을 토대로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한다.

2026년 장학생 선발관련 상세 내용은 2025년 10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장학금 신청 또는 장학금 관련 소식은 임지훈 장학재단 (<https://www.jrimfoundation.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 〈전체 기사 읽기〉

#### 수상자 전체 명단

- Amy Park, Princeton University, Psychology
- Andrew Cho, Princeton University, Computer Science
- Brady Park, University of Virginia, Computer Science
- Chris Kim, Georgetown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 David Yun, Yale University, Global Affairs and Religious Studies
- Erica Lee, Cornell University, Human Biology, Health, and Society
- Eunchoe Kang, Amherst College, Neuroscience
- Hannah Lee, The College of New Jersey, Chemistry (7-year BS/MD program)
- Henry Min, Brown University, Applied Mathematics-Economics and Computer Science
- Jaemin Ku, Cornell University,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 Jin Lee, New York University, Business,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 Jiwoo Lee, University of Pennsylvania, Neuroscience
- Jonathan Jeun, University of Pennsylvania, Real Estate and Anthropology
- Joseph Hwang, Harvard University, Bioinformatics and Computational Biology
- Lisa Baek, Brown University, Applied Math and Computer Science
- Michelle Cheon, Yale University, Molecular Biophysics and Biochemistry
- Nathan Kim,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Finance and Computer Science, Economics, and Data Science
- Saehee Perez, University of Virginia, Government
- Sorim Lee, University of Pennsylvania, Finance and Accounting
- Yewon Lee, Harvard University, Chemistry

##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2025년도 장학생 모집

###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최진민)가 뉴잉글랜드 지역의 학생들 대상으로 2025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이번 장학생 선발 대상은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11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이다. 한국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 유학생, 1.5세, 2세, 입양자로서 한국 전통을 존중하는 학생들이어야 한다.

서울대 동창회에 따르면, 이번 장학금은 뉴잉글랜드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하여 학업과 미래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및 멘토십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2쪽 이내의 에세이 그리고 성적표까지 모든 구비 서류를 온라인(online)으로 마감일 5월 11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웹사이트, [www.snuaane.org](http://www.snuaane.org)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은 \$2,000에서 \$3,000 사이로, 특히 이 장학금을 독창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진 지원자에게 우선 고려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6월 초에 이메일로 개별 통보하며, 장학금 수여식은 6월 14일 동창회 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학금 신청에 관한 문의는 [snuaane.future@gmail.com](mailto:snuaane.future@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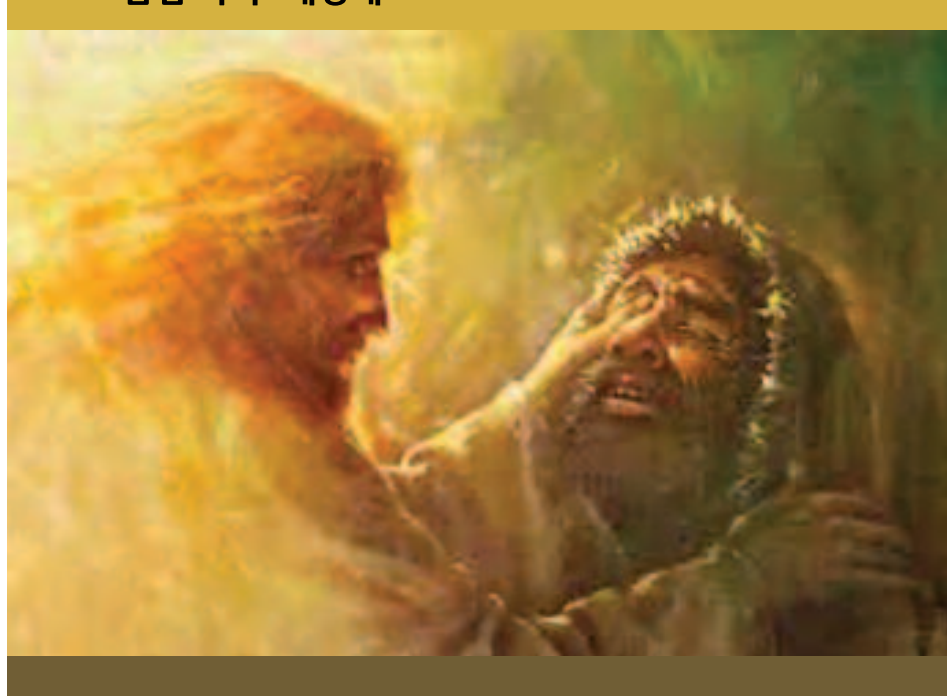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 보스톤실로암교회 Siloam Church of Boston

주일예배 : 오후 1시(한글) / 2시 15분(영어)  
기도 모임 및 신앙 상담: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보스톤실로암교회 (Siloam Church of Boston)  
6 Eddy Street, Waltham, MA 02453  
Cell: 857-540-1904  
담임 목사: 예성혜



# 하버드·노스이스턴·텡스·유매스 등 학생들 비자 취소 당해, 유학생 '불안, 공포 확산'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최근 하버드 대학교, 노스이스턴 대학교, 텡스 대학교, 유매스(UMass) 등 매사추세츠 주요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일부의 학생 비자가 연방 정부에 의해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이같은 연방 정부의 일방적인 비자 취소는 유학생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버드 크립슨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6일, 재학생 3명과 최근 졸업생 2명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하버드 국제학생처는 국제학생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비자 취소의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지만, 미국 전역의 여러 대학에서 비슷한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매스 애머스트 캠퍼스는 금요일 밤 5명의 학생 비자 취소를 확인한 데 이어, 토요일 추가로 1명의 학생 비자도 취소된 사실을 밝혔다. 하비에르 레예스 총장은 일요일 성명에서 "비자 취소는 전적으로 연방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이며, 학교는 이에 대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보스톤글로브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유매스 보스톤의 마르셀로 수아

〈전체 기사 읽기〉 레즈-오로스코 총장도 "2명의 재학생과 5명의 커뮤니티 구성원이 비자를 취소당했다"며, 즉각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5명은 대부분이 졸업후 실습중이라고 유매스 보스톤은 밝혔다.

노스이스턴 대도 "다수의 재학생 및 졸업생이 국무부로부터 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대학은 FAQ 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했으며, 정치적 발언이나 시위 참여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텡스 대학교는 터키 국적의 박사과정 학생 루메이사 오즈투르크와 다른 대학원생 1명이 비자와 체류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오즈투르크는 3월 25일 보스톤 인근 서머빌 거리에서 복면을 쓴 연방 이민단속요원에 체포돼 루이지애나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그녀의 비자는 이미 3월 21일에 취소됐지만, 체포 전까지 본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

연방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자국법을 위반한 비시민권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며, 이는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비자 취소와 추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비자 취소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유매스 애머스트 국제학생처 캐플린 트리베디 부처장은 이번 비자 취소가 학생들의 시위참여와 관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학생도 시위와 관련해서 체포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학생비자는 여러 이유로 인해 평상시에도 취소 되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안에 한꺼번에 취소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트리베디 부처장은 계속 연방정부의 비자 데이터베이스인 SAVIS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많은 국제학생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학생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며 다음엔 "누구의 차례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법률개혁연구소 이민법 전문가 헤더 윌슨 변호사는 "최근 몇몇 유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거나 아예 입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17년간 이민법을 다뤄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 본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 국토부, 소셜미디어 활동 이민심사에 반영 공식화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이 4월 8일부터 외국인의 소셜미디어상 활동을 이민 혜택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 유학생, 그리고 반유대주의 활동과 연계된 교육기관 소속 외국인들의 미국내 체류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반유대주의 대응 관련 행정명령에 근거한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극단주의자와 테러 연계 외국인을 미국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이민법 집행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록 반유대주의와 테러리스트를 중심으로 제재를 가할 방침이지만 미국에 비판적인 내용도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한인 및 유학생들은 소셜미디어 활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부 대변인은 "미국은 전 세계의 테러 동조자들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전체 기사 읽기〉"며 "미국에 와서 언론의 자유라는 수정헌법 1조 뒤에 숨어 반유대주의적 폭력과 테러를 옹호하려는 자들은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지침에 따라, 외국인이 소셜미디어에서 하마스(Hamas),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헤즈볼라, 후티 반군(Ansar Allah, Houthi) 등 반유대주의 테러 조직을 옹호하거나, 관련 이념 및 활동을 지지·조장하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이는 이민 혜택 심사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침은 즉시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유학생 비자 신청자, 영주권 신청자, 반유대주의 활동과 연계된 대학이나 기관 소속 외국인 등은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민 혜택이 거절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USCIS 공식 웹사이트(uscis.gov) 또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 Pine Dental



Fitchburg, MA에서  
여러분의 치아를  
책임지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삶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394 water St.  
Fitchburg, MA 01420

Phone: 978.345.7400  
Pinedentalpc@gmail.com

###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학생비자 (F-1) SEVIS 해지 사태, 이렇게 대응하라

이번주부터 유학생 비자 (F-1) 소지자 및 일부 교환 방문자들에 대해 국토부 산하 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이 SEVIS 기록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기록이 해지되면 I-20가 해지 되기 때문에 합법신분을 잃게 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무부로부터 비자를 취소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SEVIS 기록 해지 사유를 알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일 보고된 사유들 중 가장 많은 사유는 최근에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했거나, 비자가 기각된 경력이 있거나,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특히 유무죄와 상관없이 아주 오래된 경범죄를 포함하여 법 집행 기관과 마주친 적이 있는 학생들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EVIS 기록은 SEVP가 아닌 교육 기관 (학교)에서 해지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정부가 해지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학교의 DSO(지정 학교 담당관)나

학생은 이러한 종료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해지사태가 시작된 후 일부 학교의 DSO 들이 거의 매일 학생들의 SEVIS 를 확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 스스로 확인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혹시 이번 해지사태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다음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민국은 2009년부터 학생의 불법 체류를 당국이 인지한 시점부터 불법 체류로 간주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바꿔 2024년 9월부터 학생비자 체류 기간 D/S의 불법체류 시점을 불법 체류가 시작된 날부터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SEVIS 해지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Reinstatement 또는 출국 중 하나를 되도록 빨리 선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 본인 SEVIS 계정의 정기적 모니터링을 학교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SEVIS 가 해지된 경우 SEVIS 복원 또는 출국을 즉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나 비자 거부

나 취소의 경력이 없는 분들을 학교에 빨리 SEVIS Reinstatement 를 요청해서 이민국에 Reinstatement 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범죄 (경범죄 포함) 경력이 있거나 허가 없이 노동하거나 OPT 기간 중인 분들입니다. 현행법상 경범죄로는 합법적인 비자 신분자들을 불법으로 취급할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Reinstatement 의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Reinstatement 의 조건 중 하나가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OPT 기간인 분들은 이유가 어찌 됐든 Reinstatement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일단 출국하신 후 대책을 논의하신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SEVIS 해지를 통보 받으셨어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에 대한 대책과 확실한 가이드라인 요청이 이민변호사들과 단체로부터 만들어지고 있으니 곧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체 기사 읽기〉



지은석 동포담당영사가 재외선거 등록 마감일인 4월 24일을 가리키고 있다

## 2대 대통령 재외 선거 재외국민 등록 24일까지 마쳐야

▶▶ 1면에 이어서

지 않은 24일이 마지막 노선이었다. 재외 유권자들은 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를 이용해 재외 유권자 신고 및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뉴튼 소재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를 위해서는 미국에 단기 체류 중인 국외부재자는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다. 미국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영구등록이 되어 있지만 2회 이상 재외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재등록이 필요하다.

지난해 선거에서 보스톤 지역 재외선거인 들의 경우 상당수가 영구등록으로 착오해서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보스톤 총영사관 측은 전했다.

보스톤 총영사관 지은석 영사는 “재외 선거인 중 2회 이상 재외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분은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영구등록이라 생각하시는 재외 선거인 분들 중에 투표 당일에서야 재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기간 중 등록을 확인 바란다”고 말했다.

지영사는 “이번 대통령 재외 선거 등록 신청 기한이 짧으므로 24일 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소중한 유권자의 권리를 좀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스톤 총영사관은 등록 및 재외선거관련 어떠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바로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문의는 보스톤 총영사관 617-642-2830으로 할 수 있다.

JUNG KWAN JANG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정

정관장 紅蔘 6년 6년 KOREAN RED GINSENG

-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 당뇨 합병증 예방
-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 기억회복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781-238-0303 전화주문 서비스

##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수만 대 구매... 로봇 산업 '초대형 투자'

보스턴 비즈니스 저널, 미국 210억달러 투자 계획의 일환, 60억 달러 로봇 구매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210억 달러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힌 이후, 매사추세츠 보스턴 인근 월담(Waltham, MA)에 본사를 둔 자사 소유 보스턴 다이내믹스로부터도 로봇 수만 대 또한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턴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현대차그룹이 미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별도로 책정한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수년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대규모 로봇을 구매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로써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대주주이자 동시에 최대 고객이 될 예정이다.

이 같은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중 무역 보복 관세 조치 직전에 이뤄졌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의 미국 투자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외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현대차는 관세를 피할 수 있다” 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측은 이번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

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0년 12월, 약 11억 달러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인수하며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후 현대차는 개모양의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을 공장 점검 및 유지보수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Atlas)’ 도입도 준비 중이다. 현대차는 이번 대량 로봇 도입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현대차는 자사의 제조 역량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술을 융합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로봇 제조업체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 장재훈 부회장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로보틱스 AI는 현대차그룹의 미래 전략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의 사업 환경을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로봇 산업의 선도자 달성 과정을 촉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전체 기사 읽기〉

한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뜨거운 관심과 투자가 몰리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35년까지 현재의 10배가 넘는 3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최근 중국 정부도 로봇 및 AI 개발을 위한 1,380억 달러 규모의 국책 벤처 펀드 조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난해 토요타리서치연구소와 협력해 아틀라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는 로봇이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단기적인 소비자 제품을 만들기 보다는 장기적인 기술 진보와 연구에 방점을 두고 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버트 플레이더 최고경영자는 “지난 몇 년간 로봇 산업에 수많은 신생 기업들이 진입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고 밝히고 “로봇을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의 규모가 거대할 것이기에 현대차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양사의 강점을 결합하는 게 필수적이다” 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 아시아 레스토랑 운영자 위한 무료 온라인 워크숍

‘어떤 메뉴가 진짜 돈을 벌어드 주는지 알려준다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아시아계와 및 태평양 섬 주민 (AAPI) 문화유산의 달을 앞두고, 아시아 레스토랑 사업자를 위한 무료 온라인 워크숍이 열린다.

비영리단체 보스톤재단 아시아어메리칸위원회(AAC) 산하 아시아비즈니스진흥위원회(Asian Business Empowerment Council, ABEC)가 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은 4월 14일(월)과 4월 23일(수), 두 차례에 걸쳐 줌(Zoom)을 통해 진행된다. 워크숍은 ▲메뉴 디자인과 수익성 향상 (4월 14일) ▲고객 참여 및 마케팅 전략(4월 23일)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며, 모두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참가자는 만다린어, 광둥어, 크메르어, 한국어, 베트남어로 제공되는 실시간 통역을 통해 언어 장벽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첫 번째 워크숍에서는 메뉴 구

### 〈전체 기사 읽기〉

성의 핵심 요소인 ‘컨셉트’, ‘시장 적합성’, ‘수익성’을 중심으로, 가장 잘 팔리는 메뉴를 찾는 법, 메뉴의 원가를 정확히 계산하는 법, 그리고 어떤 메뉴가 진짜 돈을 벌어드 주는지 분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와 함께 고객 시선을 사로잡는 메뉴판 디자인 전략 등이 다뤄진다. 복잡하고 긴 메뉴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레스토랑을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이 제공될 예정이다.

두 번째 워크숍은 레스토랑 고유의 브랜드 스토리를 마케팅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마케팅 전략, 온오프라인 마케팅 성공 사례 및 노하우를 나누게 된다.

참가 등록은 [bit.ly/abec-workshops](https://bit.ly/abec-workshops)에서 가능하다.

# 모두에게 감동인 PEM후원의 밤, "이렇게 좋을 몰랐다"

▶▶1면에 이어서  
과는 합격이었다.

저녁식사와 함께 한식의 상장이라 할 수 있는 대형 비빔밥이 등장했으며, 한인사회 단체장들과 김재휘 보스턴 총영사가 함께 참여해 비빔밥을 함께 비비는 시연을 보였다. 특히 이날 참가자들은 커다란 비빔밥에도 놀라고 또 뛰어난 맛에도 감명을 받았다.

이학재 강원도도민회 부회장의 사회로, 보스턴풍물커뮤니티가 풍물을 연주하며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풍물놀이패는 신나는 연주를 선보이며 참석자들의 환호를 이끌었다. 이어 2세들로 구성된 뉴잉글랜드한국학교의 사물놀이패가 중모리 장단에 이어 휘모리 장단을 연주하며 박수 갈채를 받았다.

김신애씨는 오토하프를 연주하며 감미로운 하프 음악을 선사했고 관중들과 함께 고향의 봄을 함께 불렀다. 이한나 평통 부회장은 이웃으로 전통무의 선과 움직임의 아름다움을 보여줬다.

바로 이어진 노인회 난타팀은 고령의 연령층에도 불구하고 전체 관중을 휘어잡는 우렁찬 북소리 퍼포먼스로 관중들의 흥을 돋웠다. 케이팝 댄스그룹 엄브라는 2개 팀이 참가해서 뛰어난 케이팝 커버 댄스로 이날 행사를 절정으로 치닫게 했다.

마지막으로 출연한 라라밴드는 귀에 익은 여행 스케치의 <나에게 난, 너에게 난> 연주를 시작으로 <연>, <나어떡해>, <걱정말아요 그대> 등을 연주하며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특히 아마추어 밴드

이지만 훌륭한 연주로 일어나려던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매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이학재 강원도향우회 부회장은 재치있는 진행로 관중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으며 경품추첨에서도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PEM 유길준관 재개관 기금 모금 후원야회는 지난해 12월 연말 모임에서 5월 재개관하는 유길준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금 모금을 위해 양미아 시민협회 이사장이 한인단체장 및 주요 관계자들의 모임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월 12일 브루클라인 보스턴 한인교회에서 첫모임 이후 한인사회 11개 단체 등 전체가 참여해 PEM 한국커뮤니티 후원회(회장 양미아)를 구성했다. 이후 3개월간 여러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후원의 밤 행사 마련에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단체 카톡방을 개설해 토론했으며 지속적인 후원 모금 홍보활동 및 후원의 밤 행사 준비 작업을 해왔다.

공연팀 모집, 이날 음식 마련, 심지어 꽃장식, 테이블보 등의 구입도 역할을 정했으며 일부 자원봉사팀은 행사 당일 일찍부터 나와 테이블을 장식하고 배치하는 작업을 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지갑을 서슴없이 열었다.

유대인의 공리(Axioms)중 하나는 재산의 10%를 기부에 쓰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부했을 때 오는 행복감의 선물이고, 둘째 언젠가는

돌고돌아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세월을 거치며 만들어진 이 같은 전통을 보스턴 한인사회가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날이었다. 이날 많은 참가자들이 감동의 여운을 간직한 모습이었으며 마음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양미아 회장은 행사 후 “제게는 매 순간이 감사함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모두가 한마음으로 같이하는 순간이 감격이고 행복이었다”고 말하고 “아직도 후원금이 답지고 있어 5만달러를 채우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휘 총영사는 “보스턴 한인 동포사회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후원행사였다. 양미아 후원회장님, 동포단체장님들 그리고 모든 애쓰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수옥 PEM 최고대의협력책임자는 “이번 행사는 한인사회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준 감동의 모습이었습니다”고 말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멀리 로드아일랜드에서 한인들과 함께 참가한 윤광옥 회장도 “뉴잉글랜드 한인사회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함께 하는데 참여할 수 있어 자랑스러웠다”고 밝혔다.

후원회 카톡방에서는 양 회장의 리더십, 단체들의 헌신을 칭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editor@bostonkorea.com



저녁식사를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참석자들



노인회원으로 구성된 난타 공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사물놀이팀의 공연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모습

**YOUNG DENTISTRY**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중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 하버드 안팎서 트럼프 정부에 맞서라는 주문 확산

### 트럼프 정부의 요구사항에 분연히 맞서야 한다는 의견 모든 반발은 법정에서 다뤄야 한다는 신중론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에 반유대주의 대응을 명분으로 한 일련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가운데, 하버드가 이에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는 학생, 교수진, 그리고 유명 동문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90억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담보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프로그램 종료, 성취도 기반 입학 및 채용 제도 도입,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 강화, 학생 징계 절차 변경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하버드와 고등교육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인 하버드 동문인 세스 몰턴(Seth Moulton)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금을 보유한 하버드는 옳은 일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다른 대학들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버드는 연간 약 90억 달러에 이르는 연방 연구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보스톤 아동병원, 매스제너럴 브리검, 베이스이스라엘 메디컬센터 등과 연계된 연구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버드 제이슨 뉴튼 대변인은 “다양한 재정 상황에 대비해 준비 중”이라며 최근 7억5천만 달러를 차입해 재정 방어에 나섰다 밝혔다.

하지만 하버드는 현재까지 브라운, 프린스턴 등 타 명문대처럼 공개적으로 학문적 자유 수호를 이야기

하지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지도 않았다. 이에 하버드 구성원과 동문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버드 감찰위원회(Board of Overseers) 위원이자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피오나 힐은 “개별 기관이 나서기보다는 연합을 형성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전 책임자 케네스 로스(Kenneth Roth)도 “법률계, 대학계가 함께 저항하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스이스턴대 전 총장 리처드 프리랜드는 하버드대학교는 물론, 전체 고등교육계가 막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하버드 총장과 리더십, 그리고 이사회에 엄청난 짐이 지워졌다”며 “모두가 하버드를 미국, 나아가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버드의 대응 방식은 전체 고등교육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버드 내부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버드 로스쿨의 노아 펠드먼 교수는 “정부의 요구가 위법하다면 당연히 법정 안에서 싸워야 하며, 반유대주의 및 DEI역차별 등 시민권법 준수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버드 측은 지난해 학내 구성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학문적 자유와 구성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 대책 TF와의 협력의

### 〈전체 기사 읽기〉

사도 밝혔다. 이는 사실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버드 로스쿨의 니콜라스 보위 교수는 “이건 사실상 끝이 없는 공갈”이라며, 한번 양보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버드 교육대 전 학장이자 교육경제학자인 브리짓 롱 교수도 “어떤 요구가 위법이고, 어떤 것이 합법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혼란스러워했다.

학생들도 우려하고 있다. 물리학을 전공하는 2학년생 헬레나 잭슨은 “DEI 프로그램이 사라지면 소수자 학생들의 공간이 사라질 것”이라



며 걱정했고, 동시에 연방 기금 손실에 따른 과학 연구 위축도 우려했다.

하버드의 컴퓨터 과학 교수 보아즈 바라크는 “유대인 및 이스라엘계 학생들이 편견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필요하지만, 위법한 개

입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며 “타겟이 된 학자나 학생에게는 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버드의 입장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트럼프정부가 하버드에 보낸 요구 사항들

트럼프 정부의 반유대주의 테스트는 2025년 4월 3일 하버드 측에 연방 지원금 수십억 달러의 중단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은 요구 사항 목록을 전달했다. 이는 이번 주 초 행정부가 하버드 및 그 산하 연구기관들(매스제너럴 브리검, 보스톤 칠드런스병원 등 포함)에 배정된 약 90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 및 계약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 반유대주의 편향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및 책임 강화
  - 반유대주의를 조장하는 프로그램 및 학과를 재고하고, 편향 해소 및 관점 다양성을 확대해 반 유대적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할 것.
- 징계 제도 개혁 및 일관된 책임 묻기
  - 하버드는 기존 징계 정책을 일관되고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무가 있으며, 최종 결정에 대해 고위 행정 지

도부가 책임을 갖는다. 포괄적인 마스크 착용 금지(의료적·종교적 예외 허용, 항상 신원 확인 가능해야 함)와 시간, 장소, 방식(Time, Place, and Manner) 정책의 명확히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발생한 반유대주의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보고할 것.

- 학생 단체에 대한 책임 부여
  - 인가된 단체와 비인가 단체, 그리고 그 리더십에 대해 하버드 정책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조치할 것.
- 거버넌스 및 리더십 개혁
  - 조직 구조를 개선하고 명확한 권한과 책임 체계를 구축하며, 분서한에 명시된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교직원 및 행정 리더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개혁을 시행할 것.
- 성적 기반 입학 제도 개혁
  - 성취도 기반(merit-based) 입학 정책을 도입 및 시행하고, 학부와 대학원 등 모든 프로그램에서 인증, 피

부색,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한 입학 우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 변화가 구조적, 인사업 조치를 통해 지속 가능하도록 할 것.

-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프로그램 중단
  - DEI 프로그램은 인증 및 정체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학생, 교수, 직원, 리더십이 서로를 평가하도록 교육하며, 이는 분열과 증오를 조장한다고 명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 법집행기관과의 협력
  -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하버드는 법집행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 교육부(ED), 국토부(DHS) 및 기타 연방 규제 기관에 투명한 보고
  - 고등교육법 제117조에 따른 기준 법적 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DHS 및 기타 연방 규제 기관과 완전히 협력할 것을 약속해야 하며, 이의 준수를 가능케 하기 위한 조치 개편도 수행할 것.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 978.343.6080

##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 617.543.8106

# 일부 대학 총장 트럼프 정부에 맞서, 하버드는 신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프린스턴, 브라운, 웨슬리안, 마운트홀리오크 대학 등의 총장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저항은 연방정부의 직접 지시에 맞서는 방식이 아니라 언론 인터뷰 등 공공 발언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즉 정면으로 정부가 요구한 정책 이행을 거부하거나 연방 자금 삭감을 감수하는 등의 전면적인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았다.

반면, 매사추세츠 서부에 위치한 마운트홀리오크 대학만이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다양성, 형평성, 포용(DEI) 프로그램 폐지를 거부하며 “연방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핵심 가치는 지켜야 한다” 고

선언한 바 있다. 소규모 인문대학으로 연방 자금 의존도는 대형 연구중심 대학에 낮지만 지금까지 유일한 직접적인 정책이행의 거부였다.

마운트홀리오크의 다니엘 홀리 총장은 인터뷰에서 “고등교육은 지금 실존적 위기를 겪고 있다” 며 “고등교육이 기반하고 있는 가치 자체가 공격받고 있기에 대학 리더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고 말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많은 대학 총장들은 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연방정부는 브라운, 컬럼비아, 코넬, 하버드, 노스웨스턴, 펜실베이니아, 프린스턴 등 주요 명문대학들에 대

해 수십억 달러의 자금 중단 또는 보류를 통보했다. 이는 연방 당국이 이들 대학이 인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조사하면서 이루어진 조치다.

행정부는 일부 대학이 가자지구 전쟁 이후 반유대주의를 묵인했고, DEI 프로그램이 인종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정책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수진, 학생, 동문 등은 주요 대학들이 학문적 자유와 정치적 표현에 대한 탄압에 더 강력히 맞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프린스턴대 크리스토퍼 아이스그루버 총장은 뉴욕타임스 팟캐스트 ‘더 데일리’에 출연해 “현재 상황은 위기” 라며 “미국 대학과 연구의 질을 지탱하는 자금이 위협받고 있다” 고 말했다. 프린스턴 역시 수백만 달러의 연구 자금이 보류됐지만, 하버드나 컬럼비아처럼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아직 전달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아이스그루버 총장은 “설령 연방 자금을 잃더라도 양보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브라운대 크리스티나 파슨 총장도 최근 학문적 자유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브라운과 다른 기관들에게 있어 사태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불길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고 경고했다. 이 메시지는 백악관이 브라운에 대한 5억 1천만 달러의 자금 중단 계획을 발표하기 전 나왔다.

웨슬리안대 마이클 로스 총장 역시 인터뷰와 기고문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지금의 유희정책은 재앙” 이라며 “자유를 양보하면 상대는 더 많은 권력을 요구하게 된다” 고 말했다.

미국대학협회(ACE)의 테드 미첼 회장

## <전체 기사 읽기>

은 1,600여 개 대학을 대표해, 학문적 자유와 미국의 연구 우위를 지키기 위한 공개서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 방지를 명분으로 연방 자금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대학 총장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미첼 회장은 지적한다. “어떤 총장도 ‘우리 유대인 학생 보호를 더 잘할 필요가 없다’ 는 인상을 주고 싶어하지 않는다” 며 “하지만 연구자금을 불모로 삼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아이스그루버 총장은 반유대주의 대응이 “모든 대학 총장의 기본 책임” 이라고 하면서도, 정부가 인권 조사에서 ‘적법절차’ 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컬럼비아대의 사례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미첼 회장은 아이스그루버, 파슨, 로스 총장이 비교적 장기간 재임하며 신뢰를 쌓아왔기에 이런 발언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들은 동료들 사이에서, 기부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정부기관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쌓아왔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총장들이 동참할지 주목된다” 고 말했다.

한편 하버드, 컬럼비아, 유펜(UPenn) 등은 최근 총장 교체를 겪었다. 컬럼비아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중임시 총장을 교체했고, 하버드는 행정부가 거의 9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자금에 대한 전면 검토를 시작하자 학생, 교수, 동문들로부터 강경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하버드는 아직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주 7억 5천만 달러를 차입해 향후 재정 상황 변화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했다.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민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내가 너를 지명하여 물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1)

## 비전 교회

Grace Vision United Methodist Church

주일 예배 : 오전 10시 30분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담임 목사 : 구정훈  
마동부/youth 전도사 : 최민영  
청년부 전도사 : 남윤지

545 Moody St. Waltham, MA 02453  
Tel: 910.670.4858 www.gracevisionumc.org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kacl-ne.org](http://kacl-ne.org)

**Open to High School & College Students ONLY**

**SUPPORT KACL-NE  
BY FOLLOWING US  
ON ALL PLATFORMS**



in



f



Instagram icon

# 2025 CIVIC ENGAGEMENT & LEADERSHIP SCHOLARSHIP

Empowering Korean-American students through civic engagement, leadership development, and mentorship.

**\$2,000 SCHOLARSHIPS**

## ACCESS TO:

- List of open statewide internships
- Mentorship
- Networking & engagement opportunities

**APPLICATIONS AVAILABLE NOW**



APPLICATION DEADLINE  
**APRIL 30, 2025**

**APPLY NOW**



INTERVIEWS CONDUCTED ON A ROLLING BASIS  
Email: [application@kacl-ne.org](mailto:application@kacl-ne.org)





# 트럼프정부, 난방 보조 프로그램 직원 전원 해고 ... 지원 불투명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겨울철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보조하는 저소득층 가정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LIHEAP)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트럼프정부는 4월 초 해당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연방 직원 전원을 해고하고, 보스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지역 사무소 5곳을 전격 폐쇄했다.

LIHEAP은 1981년 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시작된 연방 프로그램으로, 매년 약 110,000명의 매사추세츠 주민과 30,000명의 뉴햄프셔 주민을 포함해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들에게 난방 및 냉방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마비될 상태에 놓였다.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LIHEAP 운영을 담당하는 비영리 단체 Action for Boston Community Development(ABCD)의 에너지 서비스

국장 안드레아 멘도자 (Andrea Mendoza)는 "겨울철 극한 기온 속에서 난방이 없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가스 스토브를 켜서 집을 데우는 위험한 시도를 하는 가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주정부도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모라 힐리(Maura Healey)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무소를 폐쇄하고 직원을 해고했다는 소식에 매우 놀랐다"며, "이번 조치가 시민들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은 필수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자금의 90%는 난방 시즌 시작과 함께 각 주에 배정되며, 나머지 10%는 일반적으로 2-5월 사이에 추가 배정된다. 문제는 그 10%를

**〈전체 기사 읽기〉**

승인할 연방 직원이 이제 없다는 점이다. 멘도자는 "연방 직원이 없으면 이 자금을 집행할 승인권한이 사라진다"며 행정 공백을 우려했다.

뉴햄프셔 스트래퍼드 카운티 커뮤니티 액션 파트너십의 베키 파커 대표도 "이미 높은 식료품과 주거비용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에게 이 지원은 생명줄"이라며, "내년에는 이 프로그램이 사라질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대변인 에밀리 힐리어드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부처가 의회의 법적 의도를 더 잘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만 밝혔고, 인력 없이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피했다.

hsb@bostonkorea.com



# 보스톤서도 "핸즈오프" 반트럼프 집회 ... 시위대 시청앞 가득채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4월 5일 토요일 보스톤 커먼과 시청에서 개최됐다. 이로 인해 보스톤으로 통하는 도로는 하루 종일 정체를 이뤘다.

이번 시위는 미국 50개 주에서 동시에 개최된 "핸즈오프" 전국 반트럼프 집회의 일환으로, 보스톤에서는 "핸즈오프 매사추세츠!" 라는 구호 아래 많은 매사추세츠 주민이 비와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함께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전 11시 시작 전부터 보스톤 커먼의 파커먼 밴드스탠드 인근에 모이기 시작했으며, 이후 시청 앞까지 행진했다.

시청 앞 광장에서는 에드마키 연방 상원의원, 미셸 우 보스톤 시장 등이 연설자로 나섰다. 마키 의원은 최근 이민 당국에 체포된 텡스대 박사과정 유학생 루메이사 오즈투르크의 석방을 촉구하며 "표현의 자유는 범죄가 아니다. 트럼프는 그녀를 즉각 석방하라"고 강조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스트보스톤에 거

**〈전체 기사 읽기〉**

주하는 아르헨티나 출신 유제니아 코르보(53)씨는 "우리 동네 아이들이 공포에 학교도 못가는 상황"이라며 "이 자리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 큰 위안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지지자들도 등장했다. 케임브리지 주민 로라 심슨(52)씨는 트럼프 2024 깃발을 들고 나타나 "합법적으로 이민 온 내 친구들조차 MS-13 같은 갠단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후 국토부가 갠단이라 추방한 이민자 중 절대 다수는 단순한 경범죄 또는 이민법 위반이었고 아무런 위반사항이 없는 것이 드러났다.

집회의 마무리는 보스톤을 대표하는 핑크밴드 드롭킥 머피스(Dropkick Murphys)가 장식했다. 시위를 축제처럼 음악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한국의 촛불시위, 최근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시위 때와 유사했다.

미셸 우 시장은 이날 오후 재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연단에 올라 "보스톤의 이민자, 노인, 귀어와 트랜스 커뮤니티는 결코 표적이 되어서 안 된다"며 "보스톤에서 손대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성인뚜인디블뤼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8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검 철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 3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and 2024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년 보스턴 매거진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로 선정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COMPASS**

Jason Jeon is a real estate broker affiliated with Compas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Source: MLSPin total sales 2023.

# '변덕 죽꼴뚱' 트럼프 또 롤러코스터 관세쇼...쑥대밭 만들곤 "유예"

시장 불안에 내부 반발도 심화하자 후퇴 관측...중국에 '선택과 집중' '협상 지렛대' 자평하지만 '미치광이 전술'에 예측 불가능성 확대 90일 시간 번 세계 각국 협상 박차...한국 '리더십 공백' 우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그 저 죽 꼴뚱 하는 변덕인지, 치밀한 압박 전략인지 종잡을 수 없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불허 행보가 9일(현지시간) 또 한 번 세계 경제를 들쭉날쭉했다.

주요 무역 상대에 '최악의 침해국'이라는 꼬리표까지 달아가며 상호관세 폭탄을 떨어뜨리더니, 이를 시행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에는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후 1시 18분께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되 다른 국가들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0시 1분 국가별 상호관세가 별도 부과되기 시작한 지 13시간여 만이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별도 행사까지 열어가며 상호관세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는 있을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이는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그는 이틀 전인 7일 언론에서 '관세 90일 유예설'이 보도됐을 때도 아니라고 부인했고, 백악관은 이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실제 상호관세가 부과되자 드러난 경제 충격과 안팎의 반발이 예상한 범위를 벗어나자 한발 물

러선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상호관세 발표 때부터 급락 추세를 보인 전 세계 금융시장은 앞선 '관세 유예 오보 소동' 당시에도 급격히 출렁이는 등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관세 정책의 설계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과 충돌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그룹 내부에서 관세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기류도 감지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맞불 관세, 추가 관세 등으로 대응하면서 관세율이 104%까지 치솟았다.

유럽연합(EU)도 15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징수하기로 하는 등 광범위한 보복이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안팎의 불만을 잠재우고 관세 전쟁의 핵심 타깃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투자은행 레이먼드 제임스의 애널리스트 에드 밀스는 관세 유예에 대해 "놀라우면서도 완전히 예측 가능했던 결정"이라며 "전략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거나 지속 불가능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사람들이 다소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관세 유



트럼프

예의 배경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금융시장의 요동보다는 상대국들의 협상 요청이 쇄도한 것이 유예의 직접적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결정에 대해 "협상에 최대한의 지렛대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나바로 고문 역시 이번 결정이 정책 후퇴가 아니라 관세 위협의 협상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변칙적 협상 전략의 연장선에서 이번 유예 결정도 나온 것이라는 설명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도 캐나다·멕시코·콜롬비아 등과의 관세 전

쟁에서 '일단 때리고 보는' 식으로 관세를 부과한 뒤 갑자기 유예하거나 철회하는 식으로 상대의 애를 태우는 변칙 전술을 구사해 왔다.

상대에게 예측 불가능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공포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는 '미치광이 전술'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일단 이날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는 등 시장은 관세 유예를 환영하는 모습이지만, 넓은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언제 '트럼프발 변덕'이 다시 끊어올지 알 수 없어 예측 불가능성은 더 커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 역시 어디까지 격화할지 알 수 없어 그로 인해 세계 경제가 겪을 충격과도 가늠하기

어렵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EU 등을 향해 경제 협력 강화를 타진하는 등 미국에 대항할 관세 전쟁의 우군 확보에 나서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내 미국의 경기침체 확률이 65%에 달한다고 이날 오전 전망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표 직후 철회했지만, 다시 같은 날 오후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여전히 경기침체 확률이 45%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컨설팅 회사 RSM의 수석 경제학자 조 브루셀라스도 "관세 정책의 전환이 경기 침체를 막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sncwook@yna.co.kr

**중환 교외이비인후과**  
www.junghwan.co.kr

**좋은사람들**  
www.junghwan.co.kr  
성모안과

##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성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의원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 010-3469-4040 | ID: huramkorea  
✉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 트럼프, 비관세 장벽도 '정조준'... "각국 협상서 핵심 쟁점"

### USTR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규제 비판...한국엔 소고기 수입월령 제한 등 지적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상호관세 90일 유예와 함께 각국을 상대로 한 '패키지 딜'을 예고한 가운데 비관세 무역 장벽이 앞으로 이뤄질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각국의 관세뿐 아니라 미국산 제품에 대해 설정한 각종 규제가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이라는 인식을 드러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유럽연합(EU)이 상호관세 완화를 위한 협상카드로 미국 공산품에 대한 무관세를 제안하지 않는 충분치 않다고 "관세는 큰 부분이지만 거기에는 다른 큰 부분이 있고 그것은 (비관세 무역)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가지 목표를 위해 규칙과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건 '당신의 물건을 이 국가들(EU 회원국)에 팔 수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관세 장벽을 정조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지난 달 31일 미국 무역

대표부(USTR)가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60여개 교역국의 무역 관행을 지적한 NTE 보고서는 EU의 식품 관련 규제와 IT 관련 규제, 캐나다의 유제품 공급 통제와 디지털 서비스세, 인도의 광범위한 보조금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 교역',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일 상원 청문회에서 NTE 보고서를 제시하며 각국이 최근 비관세 무역 장벽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 참모들이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는 일을 경제 협상의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보고 있다고 9일 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 문제를 공개적으로 강조하



파리 시내의 트랙터 시위 모습

는 것은 이같은 백악관 내부의 인식을 투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시행되는 일부 규제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아르헨티나는 수년간 자동차를 수입하려는 기업에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공장을 짓거나 수입품과 동등한 가치의 아르헨티나산 제품을 수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로 인해 한국의 기업인 현대차는 아르헨티나로 자사의 자동차를

들여오기 위해 아르헨티나산 땅콩을 수출하는 일을 병행하는 '어색한 비즈니스'를 해야 했다고 WSJ은 지적했다.

다만 미국이 원한다고 해서 각국이 비관세 장벽을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 메리 러블리는 비관세 장벽은 한 국가의 문화, 정치, 오랜 관행의 산물이기 때문에 제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정부는 농산물 규제를 완화하면 파리 거리에 트랙터가 줄을 설 것이란 점을 알고 있고, 일본 등도 쌀 농가를 보호하는 것을 식량 안보와 문화의 문제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도 NTE 보고서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등이 거론되자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면서 우려 확산 차단에 나선 바 있다.

##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와대? 용산? 세종? 차기 대통령 집무실 위치 두고 와글와글

'관람 중단될까...윤석열 탄핵 후 청와대 방문객 급증  
"즐속 이전 반복 안돼...여론 수렴해 신중 결정해야"

(서울=연합뉴스)이울 기자="혹시나 청와대가 닫힐까 보러왔어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문모(60) 씨는 2022년 청와대가 개방된 후 첫 방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남편과 함께 온 그는 "(탄핵)시위할 때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오지 못하다가 선고가 나자 더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아 오게 됐다"며 웃었다.

이날 청와대는 오색빛깔 한복을 입은 외국인부터 반려견 목줄, 유모차를 끌고 온 내국인 방문객까지 인파로 활기가 가득했다.

10일 청와대 재단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이후 청와대를 찾는 관람객 수는 급증했다. 탄핵 후 첫 일요일인 지난 6일에만 1만714명이 찾아, 3월 일평균 관람객 수(4천364명)의 약 2.5배를 기록했다.

지난 5일과 7일에도 각각 5천324명, 5천510명이 청와대를 찾아, 전월 평균 대비 각각 1천명가량 늘었다.

문씨처럼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 청와대 관람이 중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방문에 나선 이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향후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현 용산 집무실은 무엇보다 '비상계엄을 모의한 장소'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청와대에서 이전할 때부터 무속인 개입 의혹과 함께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각종 보안 문제도 제기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성호(61) 씨는 "집무실 이미지가 주술로 더럽혀진 만큼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집무실 이전에 찬성했다.

네이버 이용자 'ja\*\*\*'는 "내란범이 썼던 집무실을 어떻게 그대로 쓰나"고 적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새 집무실 후보지로는 청와대, 세종 등이 있다.

청와대로 집무실이 복귀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은 그 이유로 역사적 상징성, 위치적 이점 등을 꼽았다.

청와대에서 만난 문씨는 "전통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이곳에서 계속 집무실 역사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그의 남편 명모(65) 씨도 "개인적으로 청와대로 집무실을 되돌렸으면 좋겠다"며 "새로운 곳에 집무실을 마련하는 비용이 아깝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10살 아들과 함께 올라온 정지훈(38) 씨는 "청와대가 폐쇄



된다면 아쉬울 것 같아 보러 왔다"며 "다시는 새로운 집무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이고,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곳을 오래오래 집무실로 보존해주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직장인 이모(34) 씨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처럼 중요한 시설이 물리적으로 멀어지면 비상계엄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 시민들이 어떻게 모일 수 있나"라며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새로운 집무실로 세종시가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와대에서 만난 이일산(42) 씨는 "직접 와보니 청와대가 너무 화려하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대통령이 이렇게 화려한 곳에 사는 것이 맞는

지 모르겠다"며 "경기침체로 힘든 국민의 삶과 괴리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세종시도 충분히 개발된 만큼 새 집무실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한번 개방한 청와대를 다시 닫는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직장인 정모(31) 씨는 "경제·문화적 자원이 서울에 지나치게 집중된 만큼 행정적 기능만이라도 완전히 지방에 이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지방분권화는 부동산, 저출산 등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도 지목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집무실의 위치보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포에 거주하는 최모(37) 씨는 "위치보다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위치는 핑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20대 김모 씨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소통 역량은 '집무실 위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았다"며 "마음만 있으면 집무실이 어디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네이버 이용자 'oy\*\*\*'는 "대통령 바뀔 때마다 집무실도 옮길 건가. 국민 세금도 생각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역사적 전통성, 비용 최소화 측면에서 청와대를 차기 집무실 대안으로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H MART

MA WEEKLY SALE APR. 11th - APR. 17th,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 SPICY FRIED CHICKEN WITH RICE

Crispy chicken + sticky sauce + warm rice = the ultimate combo. Watch the recipe and get hungry.  
 크리스피 치킨 + 쫄득한 소스 + 따끈한 밥 = 이 조합, 못 참죠?  
 레시피 영상 보고, 침샘 폭발 주의! 재료는? 당연히 H 마트에서!



Romaine Heart Lettuce 로메인 하츠 상추 3 CNT/BAG <b>\$1.99</b>	Hallabong Mandarin 한라봉 3 LB/BOX <b>\$9.99</b>	Napa Cabbage 배추 LB <b>\$0.79</b>	Premium Fuji Apple 프리미엄 후지사과 LB <b>\$1.29</b>	Shanghai Choy 청경채 LB <b>\$0.99</b>	Orri Mandarin 柑橘 8 LB/BOX <b>\$19.99</b>	Shine Muscat Grape 샤인 머스캣 포도 1.32 LB/PKG <b>\$12.99</b>
Campari Tomato 캠파리 토마토 1 LB/PKG <b>\$0.99</b>	Zucchini Green Squash 그린 호박 LB <b>\$0.99</b>	Honey Mango 허니 망고 BOX <b>\$10.99</b>	Chinese Radish 중국 무 LB <b>\$0.69</b>	Chinese Eggplant 중국 가지 LB <b>\$0.99</b>	Thai Guava 타이 구아바 LB <b>\$3.99</b>	Organic Strawberry 유기농 딸기 2 LB/PKG <b>\$5.99</b>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U.S.D.A. CHOICE</b>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b>\$10.99</b>	Fresh Bone-in Beef Shank 생 뼈있는 소 아롱사태 LB <b>\$7.99</b>
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생 돼지 갈비 (바베큐용) LB <b>\$3.99</b>	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b>\$6.99</b>
Fresh Boneless Chicken Thigh 생 뼈없는 닭 사태 LB <b>\$3.49</b>	<b>U.S.D.A. CHOICE</b> Marinated Beef Short Ribs (LA Style) 양념 LA 갈비 SLICED/LB <b>\$16.99</b>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Live Blue Crab 활꽃게 LB <b>\$3.99</b>	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b>\$6.99</b>
Fresh Branzini 브란지니 LB <b>\$6.99</b>	Head-on Shrimp 머리새우 20-30'S LB <b>\$4.99</b>
Frozen Squid 오징어 400 UP/LB <b>\$3.49</b>	Frozen Yellowtail 방어 PRODUCT OF KOREA LB <b>\$1.99</b>

### SMART CARD MEMBER ONLY

<b>H MART SMART CARD ONLY</b> PULMUONE Cold Noodles with Spicy Sauce 풀무원 향홍 비빔냉면 <b>\$4.99</b> 13.5 OZ	<b>H MART SMART CARD ONLY</b> PULMUONE Cold Noodles with Broth 풀무원 평양 물냉면 <b>\$4.99</b> 34.9 OZ
<b>H MART SMART CARD ONLY</b> PALDO Cinnamon Punch 팔도 비락 수정과 <b>\$5.99</b> 8.05 FL OZ X 6 CANS/PKG	<b>H MART SMART CARD ONLY</b> PALDO Shikhye Rice Punch 팔도 비락식혜 <b>\$5.99</b> 8.05 FL OZ X 6 CANS/PKG

KOKUHO California Premium Rice 국보쌀 옐로우 15 LB <b>\$12.99</b>	PALDO Bibim Men Oriental Style Noodles 팔도 비빔면 4.58 OZ X 5 EA/PKG <b>\$4.99</b>	SG FOOD Seasoned Sliced Layer 성경 올리브&녹차 도시락김 2.82 OZ (20 EA/PKG) <b>\$5.99</b>	SAJO Tuna Sauce 사조 참치액 31.7 FL OZ <b>\$6.99</b>	MIZKAN Oigatsuo Tsuyu Soup Base 미즈칸 쓰유 16 FL OZ <b>\$5.99</b>
HAETAE Cooked Loach Stew 해태 추어탕 17.64 OZ <b>\$3.99</b>	JINGA Sliced/Tteokbokki Rice Cake 진가 쌀떡국떡/쌀떡볶이떡 2 LB <b>\$2.99</b>	PULMUONE Natto 풀무원 순생나토 10.5 OZ <b>\$5.99</b>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b>\$10.99</b>	HAIO Canned Whelk 해오름 굴뱅이 캔 14.1 OZ <b>\$6.49</b>
GLICO Pocky 글리코 포키 <b>2\$7</b> FOR	NAMYANG French Cafe Arabica Gold Label Instant Coffee Mix 프렌치 카페 아라비카 골드 라벨 커피 믹스 2.55 LB (100 STICKS/PKG) <b>\$16.99</b>	Waffle Washable Slippers 한국산 외골조직 위셔블 실내용 PINK/BLUE <del>\$12.99</del> <b>\$9.99</b> PAIR	CIMILAX Daily Mixing Bowl 씨밀렉스 한국산 데일리 믹싱볼 <del>\$3.49</del> <b>\$1.99</b> GRAY 50.72 FL OZ EA	Octagon Glass Cup 팔각 유리컵 M (12.51 FL OZ) L (16.23 FL OZ) <del>\$2.49</del> <del>\$2.99</del> <b>\$1.49</b> <b>\$1.99</b> EA

### TOBAGI

ENJOY KOREA'S GREATEST GIFT, MADE FRESH IN AMERICA.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최고품질의 재료들로 직접 정성을 다해 만들어 더욱 맛있습니니다.

###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BURLINGTON</b>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b>QUINCY</b>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b>BROOKLINE</b>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b>CAMBRIDGE</b>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SOMERVILLE</b>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	--	--	---	--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b>이사 이계봉</b> DIRECTOR 781.654.5281 jeklee@bostonpremierrealty.com	 <b>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b>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캐시 송</b>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ellysong@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크리스틴 손</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신보경</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ahn@bostonpremierrealty.com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c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b>김지현</b> 978.494.2043 jim@bostonpremierrealty.com	 <b>노미연</b> 617.447.0501 nohmiyeon@bostonpremierrealty.com	 <b>박주</b> 617.780.7639 tjpark@bostonpremierrealty.com	 <b>장지연</b> 978.866.3248 tjjang@bostonpremierrealty.com	 <b>이진주</b> 401.538.3397 ivy@bostonpremierrealty.com
 <b>박소연</b> 617.338.0787 soyeon@bostonpremierrealty.com	 <b>그레이스 리</b> 617.455.7710 grace@bostonpremierrealty.com	 <b>한수연</b> 617.528.6973 hansoyeon@bostonpremierrealty.com	 <b>민소연</b> 253.503.0347 minsoyeon@bostonpremierrealty.com	 <b>박지연</b> 413.507.1400 parkjiyeon@bostonpremierrealty.com	 <b>손정태</b> 617.913.3348 sonjungtae@bostonpremierrealty.com
 <b>최진진</b> 617.877.0387 jin@bostonpremierrealty.com	 <b>이정순</b> 781.836.3412 soonyee@bostonpremierrealty.com	 <b>한혜숙</b> 781.959.1214 han@bostonpremierrealty.com	 <b>장혜정</b> 617.915.1162 tjjang@bostonpremierrealty.com	 <b>이준국</b> 617.543.0728 tjyee@bostonpremierrealty.com	 <b>박진연</b> 404.641.9192 wps@bostonpremierrealty.com
 <b>Tammy Woolfolk</b> 917.294.58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b>Nancy Wang</b> 617.230.8482 nancywang@bostonpremierrealty.com	 <b>Shirley Zhao</b> 857.531.0314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b>Vivian Ye</b> 617.936.2713 vivianye@bostonpremierrealty.com	 <b>Xian Dole</b> 413.527.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b>Lu Jiong</b> 248.449.0117 jiong@bostonpremierrealty.com
 <b>John Tran</b>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b>Rebecca Phu</b>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b>Michael Sorra</b> 978.873.0076 msorra@bostonpremierrealty.com	 <b>Linda Tu</b>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b>Jun Wang</b> 646.278.26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b>Lily Wang</b> 617.936.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b>Crystal Wei</b> 413.308.0255 cwei@bostonpremierrealty.com	 <b>정혜민 박</b> 201.446.8995 min@bostonpremierrealty.com	 <b>재미경 김</b> 781.596.0409 kim@bostonpremierrealty.com	 <b>이신현</b> 857.260.0434 shin@bostonpremierrealty.com	 <b>Mini Belanger</b> 413.257.1586 mini@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 이재명 대세론 속 비명 3鎗 도전...국민의힘은 최대 20룡 전망도

## 추 내일 출마선언 · 비명계 불출마 속출...컷오프 없이 4~5명 경쟁 가능성 국민의힘 출마선언 벌써 두 자릿수 육박...2단계 컷오프로 압축할 듯 민주, 5월 초 대선 후보 확정 유력...국민의힘, 5월 3일 후보 선출

가 없는 국민의힘에서는 출마 선언이 연일 잇따르면서 경선 참여하는 잠룡이 최대 20여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하루에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3명이 출마 선언을 했다. 앞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안

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대권 도전 선언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 밖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감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처럼 숫자가 커지면서 후보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설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1대 대선 후보 선출 계획이 9일 윤곽을 드러내면서 최종 후보가 뽑힐 다음달 초까지 각당의 경선 레이스가 펼쳐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세론'이 점점 굳어지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출마 선언이 속출하며 혼전 양상이 벌어지는 등 양당의 분위기는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유력한 차기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이날 대표직을 사퇴하고 10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당에서도 곧바로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띄우는 등 경선 준비에 돌입했다. 오는 14일쯤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 약 2주 동안의 전국 순회 경선을 거쳐 5월 3~4일 정도에 후보를 확정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은 장고를 이어가는 가운데 불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김두관 전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출마자들. 왼쪽부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조만간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박용진 전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도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부산에서 당선된 전재수 의원도 도전 여부를 고심 중이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현재로서

4~5명 정도가 경선에 참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당헌당규상 경선 참여자가 6명 이하면 예비 경선(컷오프) 절차가 생략된다. 이 경우 최종 후보 선출일이 5월 1~2일로 당겨질 수도 있다.

이는 '이재명 대세론'이 워낙 강하게 형성된 탓에 경선에 나가도 뚜렷한 소득을 거두기 어렵다는 현실적 상황도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확고한 대세론을 굳힌 주자

철수 의원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합치면 벌써 5명이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선언 일정을 잡았고 유승민 전 의원도 대권 도전 의지를 천명하는 등 벌써 후보군이 두 자릿수에 육박한다.

이 밖에도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기현·나경원·윤상현·장동혁의

압축할 컷오프를 두 번 치르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경선 절차도 다소 복잡다단해졌다.

오는 14~15일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다음 서류심사를 통해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두 차례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각각 4명, 2명으로 압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 후보 선출일은 5월 3일이다.

geein@yna.co.kr



윗줄 왼쪽부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아랫줄 왼쪽부터 유정복 인천시장, 이정현 전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APR. 10<sup>TH</sup> - APR. 17<sup>TH</sup>, 2025**

**케이트타운  
카카오 파이** **NEW!**  
**K TOWN Bakeshop  
Cacao Pie**

**2\$7** ← ~~\$5.99~~  
**FOR** 0.88 OZ X 12 EA/BOX



**해오름  
우유**

**HAIO Flavored  
Milk Drink**

~~\$6.99/PKG~~

**3\$9.99**  
**FOR**

**MIX &  
MATCH!**



**STRAWBERRY  
/BANANA/COFFEE**  
**6.42 FL OZ X 6 EA/PKG**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 물고 물리는 나쁜 놈들... 드라마 '악연'과 원작 웹툰의 차이는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누군가가 너에게 해악을 끼치거든, 양갈음하러 애쓰지 말고, 그저 강가에 앉아 기다려라. 머지않아 그 사람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지니.'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 '상상력 사전' 속이 구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악연'의 주인공 이주연(신민아 분)의 상황에 딱 어울린다.

의사 주연은 약 20년 만에 박재영이라는 이름의 환자를 마주하고 얼어붙는다.

주연이 어릴 적에 당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복수심에 불타 그 환자를 죽이기로 결심하지만, 남자 친구 정민(김남길)의 만류로 마음을 돌린다.

주연은 손을 더럽히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재영이 끔찍한 죽음을 맞았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악연'에는 그야말로 나쁜 인간들이 잔뜩 등장한다.

사체를 잔뜩 지고 아버지를 죽여 사망보험금을 타내려는 패륜아 재영(이희준), 그에게 돈을 받고 살인하는 조선족 장길룡(김성균), 음주 운전 사고를 은폐하려 시신을 산에 파묻은 한상훈(이광수), 꽃뱀 이유정(공승연), 온갖 나쁜 일에 손을 대고 있는 김범준(박해수)이 서로 엮이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넘실대는 욕망이 극을 끌어가는 원동력이다. 이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사기도 치고, 잠자리도 하며, 살인도 저지른다.

악인들의 충동적인 욕망 덕에 이야기는 등장인물의 시체를 딛고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로 쉴 새 없이 내달린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이들은 망치와 삽, 자동차로 서로를 겨누고 종국에는 서로 손에 비참하게 죽어간다.

이 시리즈의 원작은 동명 카카오웹툰이다.

기본적인 구조와 캐릭터, 반전 요소 등은 모두 빌려왔다. 하지만 '사채 빛의 남자', '시체를 유기한 남자', '상처받은 여자'라는 각기 다른 시간대에서 펼쳐지는 3개의 에피소드를 같은 시기로 통합하고 인물들을 좀더 긴밀하게 엮었다.

원작에서는 상훈이 유기한 시신과 재영의 아버지가 다른 인물이었지만,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는 동일한 인물로 설정했다.

또 웹툰에서는 관련이 없던 유정과 주연이 드라마에서는 고교 동창으로 등장하고, 범준과 재영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엮인다. 원작 속 간호사였던 주연의 직업도 의사로 바뀌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범준이라는 한 인물을 김범준·장길룡으로 나눠 각각 박해수와 김성균이 연기했다는 점이다.

둘 다 인지도가 높은 배우라서 수염이나 모자 등의 분장으로 시청자에게 혼동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극 후반에서 반전 요소인 주연의 남자친구 정민 역을 특별출연한 김남길에게 맡겨 원작과 차별화했다.

그는 웹툰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조연으로 보이다가, 맨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복선을 한꺼번에 회수하면서 독자들을 놀라게 하는 캐릭터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인기



배우가 이 역할을 맡아 초반부터 시청자들이 예의주시하게 된다.

'악연'은 지난 4일 공개된 직후부터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론에 따르면 '악연'은 넷플릭스

TV쇼 가운데 글로벌 4위(6일 기준)에 올랐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서 1위를 차지했다.

heeva@yna.co.kr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merchant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mchae@dependableusa.com web: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 ▶▶ MFA 에서

# 만나요 ▶▶ 봄 이 이벤트

▶ 예술 ▶ 영화 ▶ 이벤트 ▶ 커뮤니티 ▶ 예술 ▶ 영화 ▶ 이벤트 ▶ 커뮤니티 ▶

### 영화 시리즈

## 위키드 쿼어: 보스톤 LGBTQ+ 영화제

▶ 4월 10일 - 4월 12일



### 어린이와 가족 프로그램

## 4월 봄방학 주간

▶ 4월 23일 - 4월 26일

### 특별 이벤트

## 아트인 블룸

▶ 5월 2일부터 5월 4일



# MFABoston

▶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15) 사업체 운영과 주식 투자

미국에 이민해 온 일 세대는 대부분 남의 사업체에서 일하다가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언어도 자유롭지 못한 이국땅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한푼 두푼 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심지어 목숨을 담보 삼아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일반인이 노동으로 부를 쌓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영업을 운영해서 성공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부부가 원하는 지역에서 여행을 즐기며 여유롭게 남은 인생을 보내기 위한 목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은퇴한 후에도 일하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 비즈니스를 크게 만들어 보겠다는 희망을 품고 비즈니스에 재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잠들고 있는 동안에도 나의 투자자가 여러 기업에 투자되어 수익이 창출되어야 한다.

최근 주식시장 하락을 경험하고 있지만, 작년 미국 주식시장은 57이나 새로운 최고 기록을 세우며 23% 상승했다. 이런 이유로 작년에 백만장자가 무수히 탄생(Americans are really, really bullish on stocks, Gunjan Banerji, WSJ, Sept. 3, 2024)했다. 그러나 이

런저런 이유로 나의 돈이 주식시장이 투자되어 있지 않았으면 이런 놀라운 주식시장의 수익을 받을 수 없다.

주식 투자에 관한 한인 동포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주식 투자는 도박이며 실패를 경험한 분들은 주식 투자는 해서는 안 되는 투자로 결단을 내린다. 그리고 본인은 물론 남들이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말한다. 그래서 투자를 완전히 포기하는 그룹과 이와 반면 신문, 잡지, 친지, 특히 주식 정보 인터넷에 기웃거리며 개별적인 회사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다. 주식을 사고 팔고 하기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도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룹이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아이들 키우며 이민 생활은 하루가 순간처럼 지나간다. 여기에 제대로 하는 주식 투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들께 노후대책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는지 간단히 소개한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달에 \$500씩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 한 달 \$500은 그리 큰돈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1994-2024) 동안 꾸준히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비즈니스와 전혀 상관없이 현재 \$110만 불 이상 불어났다. 부부가 함께했다면 \$220만 불로 백만장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식시장(S&P 500)이란 우리에게 익숙한 아마존, 애플,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기업 500대 기업을 하나로 묶은 투자 종목이다.

주식 투자로 부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의 기본인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다. 자영업 하는 사람이 한 개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모든 투자가 한 곳으로 집중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500여 개의 비즈니스에 분산 투자하는 것과 같고 이것이 투자 위험성을 적게 하는 것이다. 본인의 비즈니스가 실패한다고 가정해도 노후대책은 마련되는 것이다.

일부 투자자는 주식 투자로 얻는 수익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한다. 땀 흘려 버는 돈만이 값지고 참된 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과 결론은 노후 자금, 아이들 학자금, 여

러 가지 이유로 필요한 목돈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주식 투자로 받는 수익금은 내가 투자한 기업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온 이익금이다. 내가 투자한 자금은 매우 적지만 이러한 돈이 모여서 기업은 연구 개발하여 공장을 설립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이며 주식시장이 커지는 이유이다.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은퇴하게 된다. 비즈니스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노후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처분하면 목돈이 나온다. 부부가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창출해야 하는 소중한 목돈이다. 주식 투자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소중한 목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비즈니스 운영하며 작은 투자가 은퇴할 때쯤 크게 불어난 것을 경험한 투자자는 큰 목돈 역시 제대로 하는 투자로 자연스럽게 옮겨 갈 수 있다.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며 자영업을 운영하는 모든 한인에게 이 글을 바친다. 제대로 하는 주식 투자로 수익이 꾸준히 창출되어 부부가 편안하고 안락한 은퇴 생활로 이어지길 희망해 본다.

#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http://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이 보입니다.



####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http://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http://www.bostonkorea.com)

#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 요식 안내

##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고요하고 맑으며 밝은 문이 있는  
가 하면, 번거롭고 혼탁하여 어두운 문이 있습니다. 어  
떤문을 열고 닫으며 살아야 하는지는 자신의 선택과 의  
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후회  
스러웠던 일들은 가슴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각성해서  
새로운 창을 열어야 합니다.”

- 문수사 회주 도범 스님. “구도의 발자취” 중에서

### “세상에 평화 마음에 자비”

봉축법회: 불기 2569년 5월 4일 일요일

제1부: 봉축 법회 (오전 11시)

제2부: 관불의식

보스턴 문수사 연락처:

- 주소: 231 Salem St Wakefield, MA 01880
- 전화번호: 781-224-0670

문수사는 모든분께 열려있습니다.  
정기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00시



# 못다 한 사랑과의 마지막 안녕...티빙 '내가 죽기 일주일 전에'

(서울=연합뉴스) 오명연 기자 = "잘 지냈어? 그동안 나 안 보고 싶었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 4년 만에 다시 눈앞에 나타나 태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묻는다.

그를 떠나보내고 하루하루 죄책감에 시들어갔던 희완(김민하 분)과 달리, 람우(공명)는 그때 모습 그대로다.

유일하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저승사가 됐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처음 공개된 티빙 새 오리지널 시리즈 '내가 죽기 일주일 전'은 서은채 작가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삶에 의욕 없이 허기 코모리(은둔형 외톨이)처럼 살던 스물넷의 희완 앞에 어린 시절 친구이자 첫사랑인 람우가 저승사자로 나타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희완네 집을 찾아온 람우는 우선 어두컴컴한 그의 방 커튼을 열어젖히고, 공기가 탁하다며 환기

를 시킨다.

그러고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으며 운을 댄다. "넌 죽을 거야, 일주일 후에, 너는 17시간 12분 35초 후에 사망할 거야"

이미 세상을 떠난 남자 주인공, 그리고 일주일 시한부 선고를 들은 여자 주인공을 내세운 이 드라마는 두 주인공의 과거 해담과 생기 넘치던 모습과 생사의 기로에 선 현재 모습을 교차해가며 보여준다.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설렘 가득한 청춘물과, 피할 수 없는 이별을 앞둔 애절한 멜로의 재미를 적절하게 배합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같은 반이 된 람우와 희완은 만우절 장난으로 인해 얽히며 둘도 없는 친구가 됐다.

교생 선생님을 골탕 먹이려고 반 아이들이 돌씩 짝을 지어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장난기 많은 희완이 람우라는 이름을 쪽 쓰기 시작하면서 둘은 학교에서 서로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다.

성격이 정반대인 희완과 람우

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가는 전개 자체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흘러가지만, 감정에 솔직하면 서도 표현에 서투른 10대들의 풋풋한 로맨스가 익숙한 재미를 전한다.

4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공명은 부끄러움 많고, 속 깊은 고등학생이 처음 경험해보는 첫사랑의 감정을 생생하게 묘사해내고, 김민하는 천진난만한 장난꾸러기 여고생과 무기력한 스물넷의 청춘을 오가는 폭넓은 감정 연기를 선보인다.

공명이 앞서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저희 작품의 최고 관전 포인트는 저와 김민하 배우의 케미(호흡)"라고 자신했던 것처럼, 두 배우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자연스러운 연기 호흡으로 몰입감을 끌어올린다.

극 초반은 다소 코믹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내지만, 뒤로 갈수록 드라마는 보다 현실적인 감정들에 초점을 맞춘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 마주하게 되는 죄책감, 원망, 공허



함 등의 감정을 세밀하게 보여주며 지나간 사랑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연출을 총괄하는 크리에이터로 참여한 노덕 감독은 이 작품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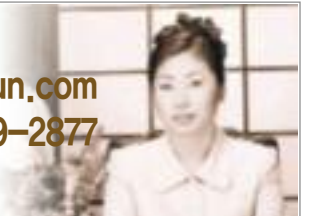
해서 "사랑은 시작하는 찬란한 순간에만 아름다운 게 아닌, 기억하는 인생 내내 아름다울 수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coup@yna.co.kr

4월 13일 - 4월 19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단단히 마무리 지어라**

- 운수: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단단하게 매듭을 지어야 잘 끊어지지 않고 풀리지 않습니다. ● 금전: 급하게 하는 행동은 이익을 손해를 바꿔놓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세요. ● 애정: 끈기 마음먹고 결심을 했다기라도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4, 17일 길일. 16, 19일 주의.

**소띠 |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 운수: 실내에만 있기보다는 잠시라도 야외로 나가거나 활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 금전: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거나 새로운 일이 들어옵니다. 차츰 수입이 늘어납니다. ● 애정: 처음에는 그리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관계가 관찮아지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3, 18일 길일. 17, 19일 주의.

**범띠 | 잠시 생각을 접어두도록**

- 운수: 지금은 잠시 생각을 접어두도록 하세요.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해결은 되지 않고 더 미궁에 빠집니다. ● 금전: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이득이 되고 호박이 넘칠듯 굴러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 애정: 기본적인 경우와 예의를 지키세요. 다시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만날 수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6, 19일 길일. 15, 18일 주의.

**토끼띠 |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 운수: 지금은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충분히 의논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도록 하세요. 적게 가져서 마음이 더 가볍고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 애정: 모든 것은 만남에서 출발합니다. 문제는 그 만남의 결과가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5, 16일 길일. 13, 19일 주의.

**용띠 |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 운수: 준비를 철저히 해둔 사람에게는 재앙도 비껴간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세요. ● 금전: 안정된 운세로 수입이 증가합니다. 금전적으로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행운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 애정: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큰 위안이 됩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유 불문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도록 하세요. 00, 88, 76, 64, 52, 40년생은 13, 18일 길일. 14, 19일 주의.

**뱀띠 |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 운수: 약간의 무리로도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도 자신의 체력에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해야 합니다. ● 금전: 적은 돈은 들어오지만, 큰돈이 나갈 일이 생깁니다. 금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기기 쉽습니다. ● 애정: 헤어지는 것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가 맞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라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4, 18일 길일. 15, 16일 주의.

**말띠 | 사랑의 힘은 위대**

- 운수: 지금 큰 기회를 잘 활용해야 미래에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거듭해오던 일도 차츰 해결될 것입니다. ● 금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가가 따라줄 것입니다. 평소보다 두 배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애정: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아름다워 보이고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5, 18일 길일. 13, 16일 주의.

**양띠 | 전화위복의 상태로**

- 운수: 호랑이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위기가 오더라도 정신을 차리면 도리어 전화위복의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 금전: 실리를 앞세우지 말고 융통성을 보이면 오히려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옵니다. ● 애정: 미련이 있어 자꾸 신경 쓰이고 마음에 걸리던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고민을 끝내고 깨끗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16, 18일 길일. 14, 17일 주의.

**원숭이띠 | 사태파악을 제대로**

- 운수: 어려운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는 후회가 물려올 것입니다. ● 금전: 좋은 물건을 보면 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과소비를 할 수 있으니 아예 소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순간적인 감정으로 마음의 있는 말을 다 했다가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3, 17일 길일. 15, 18일 주의.

**닭띠 | 병 주고 약 주는**

- 운수: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세요. ● 금전: 문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처리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살펴야 합니다. 손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애정: 병 주고 약 주는 격입니다.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가도 말 한마디에 다시 마음이 동하고 흔들립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4, 18일 길일. 16, 19일 주의.

**개띠 | 내 편을 들어주는**

- 운수: 이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드러내고 보이지 않아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다. ● 금전: 거래에 있어서 유리할 때입니다. 싸게 산 것을 이윤을 남기고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5, 19일 길일. 14, 17일 주의.

**돼지띠 | 앞에서 끌어주고**

- 운수: 가까운 곳에 있는 답을 두고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위부터 살펴보세요. ● 금전: 가능성은 있으니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부단한 노력을 지속하면 이득이 따릅니다. ● 애정: 혼자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 길일수록 둘이서 함께 가는 것이 있어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3, 16일 길일. 15, 18일 주의.

###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매사추세츠주 웰즐리 (Wellesley, Ma) 에서 매주 일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매에 걸린 연로하신 아버지를 도와주실 유경험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joint@sent.com 으로 문의해 주세요.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 뒷심있는 '폭삭 속았수다'...공개 5주차에 넷플릭스 비영어 1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제주를 배경으로 평범하면서도 따뜻한 가족의 일대기를 그린 시리즈 '폭삭 속았수다'가 지난주 넷플릭스 글로벌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비(非)영어 TV 프로그램으로 꼽혔다.

9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인 '넷플릭스 톱 10'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4월 6일까지 '폭삭 속았수다'의 시청 수(시청 시간을 상영 시간으로 나눈 값)는 540만으로, 비영어 TV 쇼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박보검과 아이유, 문소리, 박해준 주연의 '폭삭 속았수다'는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4편씩, 총 16편을 공개했다.

공개 첫 주에는 전체 4위, 2주차 2위, 3주차 1위로 상승 곡선을 그렸고, 이야기가 모두 끝난 4주차에는 3위로 떨어졌다가 이번엔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았다.

'폭삭 속았수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그려 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어려웠던 시절을 견디게 해준 끈끈한 가족의 사랑을 담아내 가족을 중시하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인기가 높았다

5주차 성적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5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 총 40개국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총 16부작에, 상영 시간만 16시간 35분에 달하는 작품이어서 시청 수 1위를 했다는 점이 더 눈에 띈다.

시청 시간만 놓고 보면 8천970만 시간으로, 같은 시기 영어 TV쇼 1위인 '소년의 시간' (6천840만 시간), 영어 영화 '라이프 리스트' (6천80만 시간), 인도네시아에서 제작된 비영어 영화 '니알라의 사랑은' (1천50만 시간)보다도 앞섰다.

이외에도 한국 작품들이 상위 10위에 들며 약진했다.

2022년 웨이브에서 방영된 뒤 플랫폼을 옮겨온 '악한영웅: 클래스 1'이 시청 수 370만으로 4위를, 웹툰 원작의 '악연' (360만)과 tvN 드라마 '감자연구소' (120만)가 각각 5위와 8위를 차지했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피프티피프티, 새 디지털 싱글 '퍼펙트 크라임'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피프티피프티는 7일 오후 6시 새 디지털 싱글 '퍼펙트 크라임' (Perfect Crime)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어트랙트가 밝혔다.

'퍼펙트 크라임'은 신시사이저 기반 사운드에 감성적인 분위기가 더해진 곡이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 묘사된 가사와 1980년대식 신시사이저 아르페지오 위에 어우러진 다양한 사운드와 조화를 이뤘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023년 히트곡 '큐피드' (Cupid)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25주 연속 진입한 바 있다.

tsl@yna.co.kr



#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73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가정의 화목이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 하나니 이는 주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 7: 24-27)

뉴욕에 와 공부를 하며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간다. 세월이 참 빠르다.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 놓고 세 아이를 생각하며 앞이 캄캄하던 그때가 스쳐 지나간다. 생각하니 그래도 참 잘 견뎌왔구나 싶은 마음에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살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 또한 세 아이가 엄마를 늘 격려하고 응원해주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엄마를 홀로 뉴욕에 보내 놓고 엄마가 잘 지낼 것이라는 가족 간의 믿음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다. 아빠가 엄마를 늘 믿어주고 살았던 것처럼 말이

다. "아빠와 엄마는 늘 친구처럼 사이 좋게 지냈어!!" 아빠를 떠나 보내고 홀로 남은 엄마에게 건네 준 세 아이들의 말이었다. 어쩌면 이 말이 나를 오늘까지 당당하고 든든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지탱하게 해준 버팀목 같은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여행을 좋아했던 엄마와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며 엄마의 후원자로 있던 아빠를 보았을 세 아이들이 흑여 우리 아빠만 고생했다고 하면 어쩌나 싶었던 마음이 솔직한 내 마음이었다. 그러나 세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의 다정했던 삶의 모습들을 떠올리며 늘 친구처럼 잘 살았다는 인정 또는 평가에 마음이 놓였다.

세 아이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매김하며 살고 있으니 그것으로 감사하다. 나 또한 신학 석사과정을 다 마치고, 상담학 박사과정을 봄학기 와 가을학기 두 번째 학기를 듣고 세 번째 봄학기 와 가을학기를 또 봄 학기를 시작으로 논문과정에 들어갔다. 아직도 2~3여 년 정도의 먼 길이지만, 공부 재미 있다. 심리 분야와 정신분석 분야는 내

게 호기심을 갖게 하고 관심이 더욱 깊어지는 공부라서 재미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읽어야 할 책들의 분량이 만만치 않고 과제물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세상 나이 예순에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지 않은가.

이렇듯 뉴욕에 와서 신학공부를 하며 사역자의 길에서 더 많은 생각들과 마주한다. 사역자의 길에서 세상을 둘러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참 많다. 열심과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몇몇의 성도들이나, 때로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양들을 이끌어 가는 몇 목회자들 그 외의 몇 전도사나 장로들 그리고 권사들과 집사들의 행실을 보게 되고 듣게 되면 참 가관이다 싶을 때가 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도들 앞에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삶을 실천으로 옮기며 사는 분들의 울긋불긋한 현실에 실망이 가득하다.

무엇보다도 신앙이 밑바탕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이라면 부부 간의 예의와 배려는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은가. 집 안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가정 밖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더욱이 서로 사랑의 말과 행동 그리고 존중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삶이다. 이처럼 믿음대로 살 때로 사는 불일치의 신앙관이라면 누가 보아도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포장한 진실이 빠진 가짜의 믿음과 신앙이 아닐까 한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이라고 성경의 말씀은 전하고 있다. 이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비바람과 폭풍우에 흔들리고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있다. 그러나 진실함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로를 믿어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살아야 하는 것이 부부이고 부모 자식이고 가정이지 않겠는가. 자녀들 앞에서 싸우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면 아이들에게 남는 것은 불안과 불만 부모에 대한 불신만 쌓게 되는 것이다. 그 어떤 것 보다도 가정의 화목이 제일 중요하다. 가정의 화목이 '하나님 나라' 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돌들의 전쟁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오규원 시인이다. 밤사이 돌들은 별이 된다고 했다. 하늘을 떠돌다 새벽이면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온다고도 했다. 살아서 움직이며 여행하는 돌인 거다.

어제 밤하늘에 가서 별이 되어 반짝이다가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온 돌들이 늦은 아침잠에 단단하게 들어 있네 봄날 하고도 발끝마다 따스한 햇볕 묻어나는 아침 (오규원, 봄날과 돌)

시적 상상력이다. 돌들은 빈손으로 돌아올리는 없겠다. 하다못해 먼지라도 묻히고

돌아오는 거다. 혹시 별에서 희귀금속을 가져왔을지도 모르겠다. 지구에선 찾아볼수 없는 희귀한 금속 말이다.

돌이 살아서 성장하며 번성할리는 없다. 돌은 무생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돌이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돌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며, 누구나 군침을 흘리고 있으니 말이다. 값나가는 금도 아니며 은도 아닌것이 말이다. 희귀광물이라 그런가? 하긴 흔한 리튬도 희귀금속이긴 하다. 세륨과 란타넘과 철의 합금이라 했으니 말이다.

희귀광물은 화학에선 희토류 원소(Rare earth elements)라 한다. 이름 그대로 귀하고 희귀한 금속들인데, 쓰임새는 매우 크다

. 과학이나 공학실험실에서만 볼수 있는건 아니라는 말인 즉, 전기차를 비롯해 스마트폰과 의료장비등 첨단산업에 두루 쓰이는 거다. 그런데 미국에선 많은 양의 희귀광물을 중국에서 수입해 쓴다고 했다.

트럼프대통령이 말했다. "우리는 수백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 난 희토류를 담보로 원한다." 이어 나온 한국 신문의 기사 제목이다. '트럼프, 희토류 채굴에 전시권한 동원...G2 광물전쟁 시작' (중앙일보, 3-21-2025). 트럼프대통령은 전시권한까지 동원했고, 중국과의 확보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다. 이어 "우크라이나도 곧 광물협정" 이라 했고, 우크라이나 희토류광물을 공급받을 수있게 된 모양이다. 우

크라이나는 울며 겨자먹기식 인가? 조선후기 금광채굴권에 관한 아픈 역사가 떠오른다. 많은 금과 은광산을 서방제국에 헐값에 넘겼던 바, 채굴할 기술도 부족했다만, 힘없는 나라는 그저 눈뜨고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푼돈으로 받은 돈은 도대체 어디있을까? 돌마냥 별나라에 저금되었나.

바하르르 돌들의 전쟁이 치열하다. 아침잠자는 돌의 콧털을 건드린 건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베드로 전서 2:5)

# 국제결혼가정선교회, 2025년 연례 모금 만찬 파티



Fundraising Dinner & Dance  
Hosted by Boston Chapter

Date : May 2, 2025 (Friday) 6 PM

Michael's Function Hall

12 Alpha St, Haverhill, MA 01832

Ticket : \$100.00 PER PERSON

Contact: 603-706-0419 / 978-407-7554

“ 평화의 땅, 평화의집 쉼터 구축과 2세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



*Sharing peace. Sharing God's blessing.*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눕니다..



국제결혼가정선교 전국연합회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ultural Family Mission

**BOSTON CHAPTER**  
[www.naicfm.org](http://www.naicfm.org)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팔팔 끓여도 죽지 않는다' 식중독 원인 '퍼프린젠스' 봄철 비상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봄철에 발생률이 증가하는 식중독 중 퍼프린젠스 식중독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내과 홍진현 과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는 도시락, 김밥, 배달음식을 많이 먹는다. 그러나 최근 배달음식을 먹고 봄철에 유행하는 '퍼프린젠스 식중독'에 걸리는 환자가 늘고 있다. 이 식중독은 육류를 주원료로 하는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열에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할 때 나타난다. 이 세균이 소장내에 들어오면 흔히 설사를 유발하는 독소를 방출한다. 기온이 상승하는 봄(3월~5월)에는 퍼프린젠스에 의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퍼프린젠스균은 오염된 고기나 육류를 주원료로 하는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열에 강해 살아남기 때문에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퍼프린젠스균은 하천이나 지하수 등에서 흔히 관찰되며 사람과 동물의 장, 분변에도 분포하고 있다.

육류와 튀긴 음식, 용기에 보관된 국에서 잘 검출되고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봄철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다. 고기를 적절히 조리하지 않거나 오래 실온에 방치하면 균이 증식할 수 있다. 또 음식을 조리한 후 장시간 냉장보관하지 않으면 퍼프린젠스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증상은 음식을 섭취한 후 6~24시간 내에 나타나며 대부분 24시간 내에 회복된다. 복통과 설사, 구토가 많이 나타나며 체온 상승은 드물지만 가벼운 발열이 있을 수 있다. 면역력이 낮은 아이와 고령층의 경우에는 증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탈수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퍼프린젠스균은 75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대

부분 파괴된다. 하지만 일부는 높은 열에도 살아남아 음식이 식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증식해 식중독을 일으킨다. 주로 국을 끓인 뒤 상온에서 오래 식히거나 육류를 냉장보관하지 않으면 퍼프린젠스균이 발견될 확률이 높다. 또한 음식을 큰 용기에 대량으로 상온 보관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내과 홍진현 과장은 "봄에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낮아 음식을 실온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낮이 되면 퍼프린젠스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음식은 반드시 냉장보관하는 것이 좋다"며 "보관한 음식을 재섭취할 때는 한번 가열했다더라도 75도 이상으로 재가열하고, 많이 남은 음식은 여러 용기에 나눠 담아 산소가 음식에 충분히 닿도록 자주 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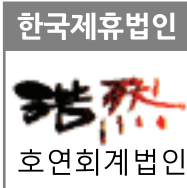
홍진현 과장은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증상이 사라지지만 심한 탈수가 있을 경우에는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 복통이나 발열이 심하면 진통제나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일부 균주는 음식을 완전히 익혀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히 익혀먹기와 보관에 특히 신경 써야 하고 조리 전에 올바른 손씻기를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팔팔 끓여도 죽지 않는다" 식중독 원인 '퍼프린젠스' 봄철 비상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Diamond Cup Annual Charity Golf Tournament



**MAY 5<sup>TH</sup>**  
MONDAY | 2025

**BLUE HILL COUNTRY CLUB**  
23 Pecunit St  
Canton MA 02021

**PREGAME**

- CHECK-IN: 10:00 AM
- PRACTICE RANGE: 10:00 AM
- LUNCH BOX: 12:00 PM

**GOLF TOURNAMENT**

- SHOTGUN START: 1:00 PM
- 18-HOLE SCRAMBLE - MALE, FEMALE, OR MIXED TEAMS
- 3 PAR-THREE HOLES - CLOSEST TO THE PIN WINS A DIAMOND!

**POSTGAME & CELEBRATION**

- DINNER: 6:00 PM
- AWARDS CEREMONY: 7:00 PM
- DJ AFTER-PARTY: 7:30 PM

**\$200**  
One Player  
**---PRIZES---**  
 CLOSEST TO THE PIN PRIZES:

- TWO-CARAT DIAMONDS (CVD)**
- 2 FOR THE MEN'S CLOSEST TO THE PIN**
- 1 FOR THE WOMEN'S CLOSEST TO THE PIN**
- TOP TEAMS:**
- 1ST PLACE: \$1,000
- 2ND PLACE: \$800
- 3RD PLACE: \$600

RAFFLES & AUCTION  
LUNCH & DINNER INCLUDED



**CONTACT US**  
(860) 304-3530

**Register Here**

**<https://bit.ly/4i3nQXD>**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 부활절

# 연합 새벽예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20)

2025년 4월 20일 오전 6시

설교 : 장성철 목사, 장소 : 성요한교회

2600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1

HE IS  
*Risen*

• CELEBRATE THE RESURRECTION •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나사렛사람교회, 내슈아인마을교회, 뉴햄프셔감리교회, 뉴햄프셔연합교회, 로드아일랜드감리교회, 로드아일랜드제일연합교회,  
로드아일랜드중앙연합교회, 무지개연합감리교회, 만안교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보스턴장로교회, 보스톤감리교회, 보스톤조아골교회, 보스톤능무교회,  
보스턴대림교회, 보스톤서부장로교회, 보스톤성결교회, 보스톤안음교회, 보스톤시온성교회, 보스톤제일교회, 보스톤주님의교회, 보스톤중앙교회, 보스톤퀵그림교회,  
보스톤한인교회, 보스톤한인연합교회, 북부보스톤연합감리교회, 비전교회, 새빛교회, 생명의길장로교회, 성요한연합감리교회, 순복음보스톤교회,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실로암교회, 라이코스교회, 안디옥연합감리교회, 열방교회, 우스터장로교회,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워싱턴티어교회, 웰슬리한인교회,  
은혜진리교회, 임마누엘연합교회, 종은감리교회, 지구촌방주교회, 케임브리지한인교회, 권지명장로교회

#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지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학동역)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세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 Letterly CEO와 함께하는 특별 Q&A 웨비나

궁금한 점을 Letterly CEO가 직접 답해드립니다.

날짜: 4월 12일 (토요일)

시간: 오후 7시 30분 (미 동부시간 기준)

## 부트캠프 프로그램 개요

- 3주간 15개의 에세이 작성: 매일 250~500 단어의 에세이 작성 및 읽기, 명확한 목표 제시
- 다양한 주제: 뉴스, 의견, 과학, 예술, 창작 글 등
- 전문 코칭: 미국 명문대 출신 강사진과 함께하는 2회 편집 + 5회 1:1 코칭
- 글 게재 기회: 우수 작품은 Letterly Journal에 게재

### 강사진 소개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코넬, 브라운, 다트머스,  
펜실베이니아대, 스와스모어,  
듀크, 유펜, 밴더빌트,  
시카고대 출신 강사들이 참여



### 학생 후기

"저는 3학년 때부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글쓰기  
실력이 크게 향상됐어요!" - Nina

"이 부트캠프를 통해 창작 글쓰기 부문에서 5개의  
Scholastic Writing 상을 수상했어요!" - Andrew

##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란?

창간 20주년을 맞은 보스톤코리아는 영어 글쓰기 교육기관인 Letterly와 손잡고 여름 방학동안 자녀들의 영어 읽기와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는 3주 동안 주 5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대1 글쓰기 선생님과 매일 정해진 글을 읽고 주어진 주제에 따라 한편의 기사 또는 에세이 글을 작성합니다. 선생님의 피드백을 활용하여 논리를 강화하고, 문장을 더 명확하게 하며, 글을 완성도 높게 수정합니다.

이 글들은 선생님들의 2차례 피드백을 받아 논리를 강화하고 문장을 더욱 명확하게 하며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편집 수정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매주 한차례씩 선생님들과 라이브 온라인 미팅을 통해 수정과정을 지도받습니다.

완성된 글들은 letterly 온라인 매거진과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 출판되어 게재됩니다.

학생들의 작문 실력은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성장 과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해  
지금 등록하세요!



### 프로그램 특징

기간: 3주간 집중 프로그램  
(6, 7, 8월 3차례)  
6월 9일 - 27일, 7월 7일 - 25일,  
8월 4일 - 22일  
수업 방식: 온라인 1:1 맞춤형 지도  
일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교육 내용:  
매일 지정된 글 독해  
주제별 기사 및 에세이 작성  
전문 코치의 이중 피드백  
주 1회 라이브 온라인 미팅을 통한  
수정 지도

### 특별 혜택

-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한 학생 개인별 성장 과정 모니터링
- 전문가의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한 글쓰기 실력 향상
- 완성된 글은 Letterly 온라인 매거진과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재
- 우수작품 선정 보스톤코리아 장학금 및 작품 게재

### 기대효과

- 논리적 사고력 강화
- 명확한 문장 구사력 향상
- 전문적인 글쓰기 편집 기술 습득
- 실제 출판 경험을 통한 자신감 향상